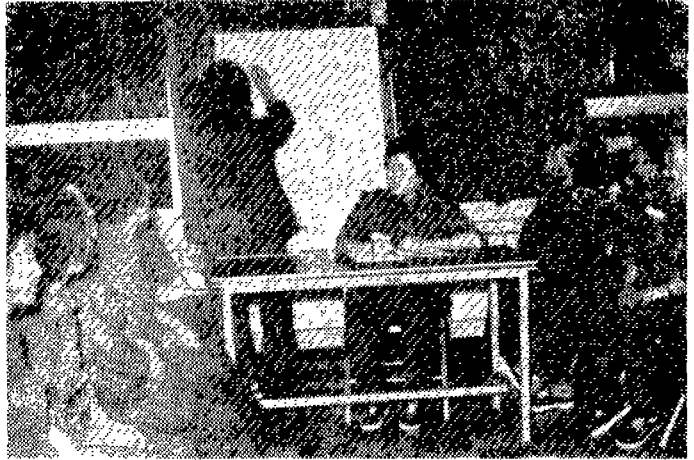


새마을 부녀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나서



김 영 숙

<본회서울시지부상무>

~ 훈련병의 긴장감 속에 "장구통 철학"을 배우며 ~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번두리로 약간 벗어나면 늘따란 9층 건물이 한눈에 보인다.

바로 이곳이 연못을 메꾸어 건축한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일명 "용강로"로 불리우는 곳이다.

9월 15일 오후 1시 서울지구 여성단체지도자 32명은 9월 15일—9월 21일까지의 일주일간의 새마을 교육을 받기 위하여 수원 연수원으로 출발하였다. 가정에서는 아내며 어머니요 직장에서는 책임자로서 일주일이라는 공백기간은 그리 쉬웁지 않은 시간이었다. 황금빛 찬란한 별단을 지나 2시가 조금 지나서 연수원에 도착하였다. 9개도에서 온 173명의 부녀지도자들은 일제히 등록을 마치고 16명을 1조로 하여 방을 배치받고 복장과 모자까지 받아듣고 남자 사감선생님의 주의사항을 들었다.

마치 훈련병들의 입소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다.

연수생들은 아침 6시에 새마을 노래소리를 기상신호로 일어나 하루의 시작은 절호로 시작하여 5리길의 구보와 야침체조 그리고 청소와 식사, 오전 8시에 명상의 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뜨거운 민족혼을 불리일으켜 주어 새마을의 기틀을 굳게 다져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하루에 11시간의 강의는 시간마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가 많았지만 특히 김현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구통 철학"의 이념을 소개해 본다. 일반적으로 장구통 하면 입구가 넓고 들어갈수록 차츰 좁아지다가 급기야는 아주 좁아지고 다시 차츰 넓어지면서 입구와 같은 형태가 되는것이 장구통의 특색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슨 운동이고 처음에는 너도나도 참여하지만 너무도 넓게 마치 장구통의 입구만 생각하기 때문에 좁아지는 과정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않고 미련에 을 결과에만 치우치는 까닭에 실패하는 운동이 허다했다. 그러나 우리의 새마을운동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두사람 지도자에 국한된 운동이 아닌 온 국민의 운동이여 이운동의 성공여부에 따라 우리의 조국은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장구통의 좁아지는 과정에 온 국민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완한다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마을과 누가 나쁠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바라지 말고 내가 우리마을과 남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집앞 쓸기부터 시작하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할 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잘사는 운동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요 정신임을 알므로써 실체가 따르지 않은 이론만을 가지고 우쭐해하던 도시 사람들의 코가 납작해지는 것은 슬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기와 애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국민들은 그 존엄성 내지 경건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국기를 대할 때는 항상 정중하게 하며 각가정에서도 국기를 계양할 때는 온가족이 다 참여하여 그 가족 제일 윗분이 횡장갑을 착용한 다음 국기를 계양하며 나머지 가족은 국기가 완전히 계양될 때까지 정중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주어야겠다.

애국가 제창을 할때에도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4절까지 부르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시골에서는 이런일이 없었지만 서울의 경우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수도물이 나오질않아 밤을 낮으로 생각하며 수도물 받기에 여념이 없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수도물값을 내니까 무슨상관이 있겠느냐는듯 흥청망청 쓰는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각자가 한알의 쌀을 절약한다면 6천명이 한끼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때 절약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 부녀자들에 대한 숙연해진 마음 ~

인도의 성웅 「마하트라 간디」는 여성의 능력을 다음의 한마디로 일축하였다.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이지만 이들 남성의 거만과 횡포를 관용하고 또한 남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힘이다”라는 말은 우리여성에게 다시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생각케 한다.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농촌부녀지도자들의 힘과 힘으로 협동하여 이루어 놓은 훌륭한 성과는 도시민인 우리 지도자들은 감히 엄두도 내질 못한다. “말은 실천이 따라야만 비로소 신성하다는 것을” 생각할때 농촌부녀자들의 힘은 대단하였다.

특히 성공사례 발표시간에는 마을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받쳐서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않고 믿고나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나 하는 것으로 알았던 너무도 부끄러운 지난날의 나를 반성하면서 용강로에서 새로 탄생한 일군답게 좀더 앞찬 내일의 설계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펴보며 가나안농학교 김용기교장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나자신 다시한번 다짐을 해본다.

1. 음식은 한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2.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3. 억지로 못살지 말고 억지로 잘살도록 하자.
4.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줄 아는 국민이 되자.
5. 물질의 빛이나 마음의 빛을 지지말자.
6. 우리국민의 뛰어난을 말과 마음과 일과 행동으로 드러내자.
7. 의도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자.
8. 시대적인 의제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우리국민의 시대적인 감각을 바로 살리자.
9. 국토통일보다 먼저 가정과 단체통일을 빨리하자.
10. 반공, 승공의 길은 빈공을 먼저 막아야 한다.
11.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하는 국민이 되자.
12. 육체의 잠이 깊어지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되고 민족사상의 잠이 깊어지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깊어지면 영혼이 멸망케 되니 늘 깨어살자.
13.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은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끝으로 오늘의 교육을 표본삼아 내마을이 변하도록 이끌어 알뜰한 내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을 이룩하도록 근면, 자조, 협동을 내것으로 마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바쳐 지역사회 역군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제11기 137번>